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the Daily Stresses
of School-age Boys and Girls*

민하영(Min, Ha Young)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the daily stresses encountered by school-age boys and girls. The subjects were 517 children who attended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covert narcissism, self control and daily stresse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term of daily stresses, the regression findings indicated the mai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Daily stresses increased as school-age boys' and girls' covert narcissism increased or their self control decreased.
- (2) Covert narcissism influenced more on daily stresses than self control did for both boys and girls.
- (3)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school - age girls'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in term of daily stresses.

Key Words :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covert narcissism), 자기통제(self control),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daily stresses).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으로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Ha-Yeoung,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712-702, Rep. of Korea
E-Mail : hymin@cu.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학교 폭력 문제가 점증하면서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비행이나 일탈 등 폭력의 주요 요인(Agnew, 1997, 2001; Kerig, Ward, Vanderzee, & Moeddel, 2009)임을 고려해 볼 때, 외부로 드러난 학교 폭력만큼이나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2004년부터 5년 간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우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Park, Park, & Kim, 2012)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측면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는 사실은 학교 폭력이나 우울 등 사회적 부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나 우울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McMahon, Grant, Compas, Thurm, & Ey, 2003)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초과하거나 위협하는 상황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개인 자신의 안녕감(well being)을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발생한다(Lazarus & Folkman, 1984; Wheaton & Montazer, 2009). 이

러한 스트레스는 외상적 스트레스(traumatic stress), 중대한 생활 스트레스(major life stress),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daily hassles)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쟁이나 유괴 등과 같은 외상적 스트레스 또는 부모의 이혼이나 교통 사고 등과 같은 주요한 생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매우 한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가정이나 학교 등 매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짜증스럽지만 경미하고 사소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대부분의 일반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다(Carter, Anderson, Hacket, Feigin, Barber, Broad, & Bonita, 2006).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사소하고 경미하여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반복되고 누적되어 만성화된다는 점 그리고 몇 개의 생활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외상적 스트레스나 중대한 생활 스트레스보다 신체, 심리적 적응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Almeida, 2005; Crnic & Greenberg, 1990; Morales & Guerra, 2006).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 Yoo,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객관적 양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양, 즉 지각 정도가 중요하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험되거나 인식되는 스트레스 양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지도하는데 있어 고려할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생활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의 지각이 주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의 인식은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기 쉽다. 다양한 개인 내적 특성 중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란 겉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열망하지만 내면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의 인성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Wink, 1991). 일반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웅대한 자기상의 욕구를 지닌다. 그러나 웅대한 자기상의 욕구를 내면으로 억압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반응 또는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소심하고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 많다(Cooper, 1998; Wink, 1991).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아동은 일상적 생활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아동들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 관계나 긴장 관계 시, 부모나 친구의 질책이나 비난, 또는 무시 등에 대해 민감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뿐 아니라 자기통제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Walter Mischel(1974)의 마시멜로 실험으로 잘 알려진 자기통제란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Rosenbaum, 2000; Vohs & Baumeister, 2004), 유혹에 저항(Magen & Gross, 2007)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등 목표, 요구, 규칙이나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높은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안정된 애착, 긍정적 정서 및 낮은 불안과 우울 등 사회적 성공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인정되고 있다(Tangney *et al.*, 2004). 자기통제가 낮은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를 나타내듯 스트레스와도 부적 관계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통제 가능하거나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를 지각(Bowlin & Baer, 2012)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면,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높이는 위기 요인이라면,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낮추는 보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 모두가 개인의 내적 심리 특성을 이루는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내적 심리 특성 중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보호 요인인 자기통제 가운데 어느 요인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 위기 요인인지 또는 보호 요인인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조기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접근 양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유의미성(주효과)을 살펴보고 두 변

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는가(상호작용 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간 상호작용에 의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정도가 변화됨이 확인된다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력 및 이들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Park, 2011),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Park *et al.*, 2012),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Hwang, 2006; Park, 2011; Sim, 1998),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높다는 연구(Han & Yoo, 1996; Sim, 1998) 등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와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선행 연구결과만으로도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 변인간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명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성차를 구분해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의도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이나 상호작용 효과에서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성별을 고려한 중재 활동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의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의 주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 51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이 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갈등 관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업과 부모, 또래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증가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하므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시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 중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17명 아동 중 5학년 아동은 287명(55.5%), 6학년 아동은 230명(44.5%), 남아는 263명(50.7%), 여아는 256명(49.3%)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102명(19.7%), 40대가 392명(75.5%), 50대 이상이 25명(4.8%),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242명(46.67%), 40대가 272명(52.4%), 50대 이상이 5명(1.0%)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91명(17.6%), 전문대졸 이상이 426명(82.4%),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17명(22.6%), 전문대졸 이상이 400명(77.4%)로 나타났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118명(36.4%), 300-400만원 미만 가구는 148명(28.6%), 400만원 이상 가구는 181명(35.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Min과 Yoo(1998)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님이 나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셔서’,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질까봐’,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조그만 일에도 잘난 척 하는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 이야기 하면서 나쁜 말이나 욕을 자주 사용해서’ 등과 같이 부모, 친구, 학업과 관련된 35개의 스트레스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측정하였다. 3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문

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35-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로부터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Gawk, Hong과 Han(2010)이 개발한 아동용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해준다’, ‘창피를 당하면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편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등의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측정하였다. 12문항으로 이루어진 내현적 자기애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 SCRS)를 사용하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기통제를 보다 높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남아와 여아별로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1.84와 1.86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역시 남아 2.07, 여아 2.09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는 남아 3.36, 여아 3.57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을 연구문제 1-1) 독립변인의 주효과, 연구문제 1-2)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연구문제 1-3) 독립변인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령기 남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A)과 자기통제(B),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A×B)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A)과 자기통제(B)의 독립변인은 각 변인에서 평균값을 뺀 센터링 된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변인(A×B)은 센터링 된 변인을 서로 곱한 것을 사용하였다(Park,

<Table 1> The mean(SD) of covert narcissism, self control and daily hassles for boys and girls

	Variables	Min ~ Max	Mean(SD)
Boys	Covert narcissism	1 ~ 4	2.07(.49)
	Self control	2.09 ~ 4.58	3.36(.48)
	Daily hassles	1 ~ 3.06	1.84(.47)
Girls	Covert narcissism	1 ~ 3.42	2.09(.48)
	Self control	1.97 ~ 4.91	3.57(.51)
	Daily hassles	1 ~ 3.83	1.86(.54)

<Table 2> Correl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boys the diagonal below, girls the diagonal above)

Variables	A	B	A×B
Covert narcissism(A)	1	-.40***	.36***
Self-control(B)	-.26***	1	-.13*
A×B	-.09	-.13*	1

* $p < .05$. *** $p < .001$.

2003). 이는 상호작용 변인 투입으로 인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중회귀분석의 가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를 알아보았다. 남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서 나타나듯 절대값 .09에서 .26사이,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1에서 .97사이,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4에서 1.10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2.04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02). 여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서 나타나듯 절대값 .13에서 .40사이,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75에서 .87사이,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6에서 1.34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2.01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02). 이는 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3은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적 성향과 자기통제 등의 중회귀분석 결과다. 학령기 남아를 살펴보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는 정적 관계($\beta = .43,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자기통제와는 부적 관계($\beta = -.12, p < .05$)의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여아 역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는 정적 관계($\beta = .44,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자기통제와는 부적 관계($\beta = -.32,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며,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전체적 설명량은 남아($R^2 = .22$)에 비해 여아($R^2 = .36$)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 변인의 예측력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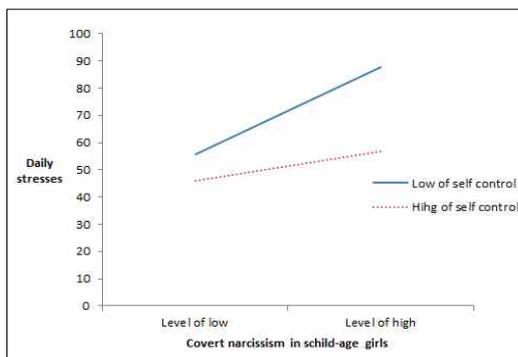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daily stresses with covert narcissism and self-control for boys and girls

Gender	Variables	Daily stresses		R ²	adjR ²	F(df)
		B	β			
Boys	Constant	64.15		.22	.21	24.35*** (3, 258)
	Covert narcissism(A)	1.22	.43***			
	Self-control(B)	-.12	-.12*			
	A×B	.00	.001			
Girls	Constant	65.68		.37	.36	49.42*** (3, 251)
	Covert narcissism(A)	1.43	.44***			
	Self-control(B)	-.36	-.32***			
	A×B	-.02	-.11*			

* $p < .05$. *** $p < .001$.

과를 토대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독립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을 Table 3에서 살펴보면 남아 여아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각각 .43과 .44로 자기통제 .12와 .32보다 높았다. 이는 남녀 아동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자기통제보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Table 3에서 살펴보면 여아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beta = -.11, p < .05$)를 나타냈다.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은 자기통제 수준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이 자기통제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daily stresses in school-age girls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주효과)을 살펴보고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는 경험적 자료의 연구문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는 남아 여아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의해 정적 영향을, 자기통제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아동에게서 보다 높은 생활 스트레스가 나타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Kang & Jung, 2002)와 유사한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대인간 맥락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Besser & Priel, 2009)하는 것처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비난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은 보다 높은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통제와 스트레스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Bowlin & Baer, 2012)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것은 상황적 요구에 맞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요구가 커지는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자기통제가 높은 아동은 환경적 요구에 순응 또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

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부적 주효과를, 자기통제는 정적 주효과를 나타낸 것은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심리적 위기 요인임을 그리고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심리적 보호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에 의해 모두 유의미하게 설명되나 남녀 아동 모두 자기통제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전체적 설명량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있어 높은 예측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남아 여아 모두 각각 높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보호 요인인 자기통제가 강할 때 보다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약간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남아아 모두 심리적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나 자아통제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하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 특히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이 자기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은 자기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으면서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으면서 낮은 자기통제를 보이는 학령기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경우 자기상이 상처입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타인의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부모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때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더라도 자기통제가 높은 경우 일상적 생활 환경에서 지각되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여아라 할지라도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가 높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낮은 여아에 비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

기애적 성향이 높아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 중 여아의 경우,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로부터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심리 내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령기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내적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위기 요인과 보호 요인을 규명하고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취약한 위기 요인을 보완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심리적 보호 요인을 각각 규명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내적 측면에만 국한함으로써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 외에 개인 내적 특성을 보완하거나 조절(중재) 또는 매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만을 관련 변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외에 일반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으로 구분(Akhtar & Thomson, 1982; Wink, 1991)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갖는 건강한 적응성이 부분적으로 보고(Emmons, 1984,

1987)되면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새롭게 조명되거나 재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보다 안정된 인성 특성으로 평가된다는 점(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을 근거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만을 다루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심리적 기능을 규명하였으면 한다.

References

- Agnew, R. (1997).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19.
- Almeida, D. M. (2005).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daily stressors assessed via diary method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64-68.
- Besser, A., & Priel, B. (2009). Emotional responses to a romantic partner's imaginary rejection : The roles of attachment anxiety, covert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7, 287-325.

- Bowlin, S. L., & Baer, R. A. (2012). Relationships between mindfulness, self-contro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411-415.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58-368.
- Carter, K. N., Anderson, C., Hacket, M. L., Feigin, V. L., Barber, P. A., Broad, J. B., & Bonita, R. (2006). Trends in ethnic disparities in stroke incidence in Auckland, New Zealand, during 1981 to 2003. *Stroke, 37*, 56-62.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6-396.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Ed.), *Disorders of narcissism :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Gang, S. H., & Chung, N. W.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4), 960-990.
- Gwak, P. H., Hong, S. H., & Han, T. H.(201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narcissism scale for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333-352.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Hwang, H. J. (2006). A study on the stress and its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9*(1), 193-216.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erig, P., Ward, R., Vanderzee, K., & Moeddel, M. (2009). Posttraumatic str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9), 1214-122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Magen, E., & Gross, J. J. (2007). Harnessing the need for immediate gratification : Cognitive reconstruction modulates the reward value of temptations. *Emotion, 7*, 415-428.
- McMahon, S. D.,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 Ey, S. (2003). Stres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Is there evidence of specificity? *Journal of*

-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4, 107-133.
-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a dail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77-96.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7). New York : Academic Press.
- Morales, J. R., & Guerra, N. G. (2006). Effects of multiple context and cumulative stress on urban children'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7(4), 907-923.
- Park, G. B. (2003). *Multivariate analysis*. Seoul : Hakjisa.
- Park, M. H, Park, K. J., & Kim, H. K. (2012). The five-yea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Korean you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4), 1-17.
- Park, Y. A. (2011). The influences of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3), 107-120.
- Rosenbaum, M. (2000). The self-regulation of experience : Openness and construction. In P. Dewe, A. M. Leiter, & T. Cox(Eds) *Coping, health and organizations*(pp. 51-67). London : Taylor & Francis.
- Sim, H. O. (1998). Depression among late - elementary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6), 133-144.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2.
- Vohs, K. D., & Baumeister, R. F. (2004).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 An introduction. In R. F. Baumeister & K. 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 1-9). New York : Guilford.
- Wheaton, B., & Montazer, S. (2009). Stressors, stress and distress(2nd ed.). In T. L. Scheid, & T. N. Brown(Eds.),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pp. 200-21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Yang, B. H. (2002).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 Hakjisa.

2013년 4월 30일 투고, 2013년 8월 3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